

장기 이식 희망자는 더 기다릴 수 없다

광주·전남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157명...매년 증가 수술 건수 급감...의정 갈등 속 생명 위독 환자 위한 대책 시급

광주·전남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장기이식 수술 건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로 장기이식 수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등이 나오면서 위독한 환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국립장기

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수는 29명, 전남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9년 47명, 2020년 52명, 2021년 59명, 2022년 73명, 2023년 66명으로 증가했다. 전남 또한 2019년 73명, 2020년 73명, 2021년 83명, 2022년 69명, 2023년 9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019년 2145명에서 매년 지속 증가해 지난해 2907명으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장기 이식 대기자 수 또한 2019년 3만 2990명에서 지난해 4만 3421명으로 1.3배 늘었다. 장기이식 평균 대기 일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기준으로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2196일(6년)을 대기해야 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2802일(7.6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 이식은 2019년 1263일에서 올해 2104일로, 심장 이식은 2019년 211일에서 올해 385일로 각각 대기 시간이 늘었다.

반면 올해 2~8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8월 전남대병원의 5대 장기이식(신장·간장·췌장·심장·폐장) 건수는 32건이다. 이식장기별로 보면 신장 20건, 간장 3건, 심장 8건, 폐장 1건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월) 65건에 비해 50.77% 감소한 수치다. 조선대병원 또한 2023년 13건에서 2024년 10건으로 수술 건수가 23.08% 줄었으며, 올해는 신

장 4건, 간장 6건을 이식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5대 장기이식 건수는 2024년 2~8월 835건으로 전년 동기 1082건과 비교할 때,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장기이식에 앞서 의료인이 뇌사 환자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의료 공백과 맞물려 이식 동의율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중증·응급 상황의 환자들이 의료공백으로 적기에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정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실전처럼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5일 광주시 광덕고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순사건 유족들 "진상규명 성과 없고 참담"

희생자·유족 결정 9.5% 그쳐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만료됐지만 희생자·유족 결정이 9.5%에 그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순 10·19 항쟁 전국유족총연합회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참담한 결과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여순특별법이 통과됐고 2022년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달 5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종료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여순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한차례도 유족회와 면담을 하거나 진상규명과 관

련한 실질적인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범 이후 회의는 9차례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7차례가 서면으로 이뤄졌다. 또 전체 7465건의 유족·희생자 신고건 중 710건만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90% 이상의 신고건은 여전히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때문에 희생자 결정서를 기다리던 유족2세들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순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여순사건위원회의 저조한 성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현재 10%도 미치지 못하는 희생자 유족 결정 사건 처리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업무 성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김디인 기자 kdi@

전대병원 사직 전공의들 병원 상대 손해 제기

"사직처리 늦어져 취업·개원 못해"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취업, 개원 등을 못 해 피해를 입었다며 각 병원을 상대로 손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전공의(16명)가 소송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57명이 각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청구금액은 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월 전공의 225명이 제출한 사직서를 8월 전부 수리

했다.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송 제기한 전공의들은 의료법과 전문의수련규정을 들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과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1만 1732명(86.7%)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병원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횡단보도 건너던 여대생 신호위반 차에 치여 숨져

횡단보도 건너던 여대생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광산경찰은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건너던 20대 여대생 2명을 치고 이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다른 1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졸업앨범서 사라지는 담임 얼굴

교원 93.1% "딤편이크 악용·초상권 침해 우려"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졸업앨범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이 딤편이크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93.1%가 졸업사진을 활용한 딤편이크 범죄나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은 줄고 있었다. 72.5%는 "사진을 넣는 것이 점점 줄고 있다"고 답했고 17.7%만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담임의 얼굴 사진도 20.4%는 "넣지 않는다"고 했고, 17.7%는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고 답했다. 학급 단체 사진에서도 14.9%는 담임 사진

을 넣지 않았다. 학생 또한 졸업앨범에 사진이 들어가길 꺼리고 있었다.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질문은 교원 45.5%는 "그렇다"고 답했다. 졸업앨범에 교원 사진을 어디까지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희망자만 넣어야 한다"가 49.8%로 가장 많았고, "모두 넣지 말아야 한다"도 38.7%나 됐다. 졸업앨범 제작에 대해서도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2%에 이르렀다. 교청은 "교사 사진이 학생·학부모의 SNS, 단톡방에 무단으로 올려지고 조롱거리가 되거나 심지어 성 착취물에 합성되는 등의 일까지 벌어지면서 사제동행의 의미마저 점점 퇴색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